

고창 봉덕리 고분군 3호분 마한 분구묘 중 최대규모

군,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남북 85m, 동서 70m 규모

구획성토...250년간 조성 추정



고창 봉덕리 고분군 3호분 시·발굴조사 현장설명회에서 공개된 발굴현장.

〈고창군 제공〉

고창에서 지난해 땅콩경작을 위한 밭갈이 중 무덤의 뚜껑돌로 추정되는 대형석재와 토기 등이 발견돼 문화재청 긴급발굴조사 대상에 선정됐던 '봉덕리 고분군 3호분'이 마한시대 최대규모의 '분구묘(墳丘墓)'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창군은 '전북마한사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창 봉덕리 고분군' 3호분 시·발굴조사 현장설명회를 지난 8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5년 사적으로 지정된 고창 봉덕리 고분군(1, 2호분)과 같은 구릉에 위치한 3호분에 대한 시·발굴조사로, 이번 학술조사 성과를 전문위원과 지역주민 등에게 공개했다.

조사는 고창 봉덕리 고분군의 사적 확대 지정과 더불어 마한고분의 성격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9~2022년 시굴조사가 진행됐고, 올해 2월부터 분구의 북서쪽 사면부에 대해 정밀발굴조사가 진행됐다.

봉덕리 고분군 3호분은 규모가 남북 85m, 동서 70m에 달한다. 우리나라 마한 분구묘(墳丘墓, 흙등을 쌓아 올린 다음 그 안에 매장시설을 설치하는

마한의 무덤양식)중에는 가장 크고, 분구의 축조는 모두 2차례에 걸쳐 높게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행의 성토층에서 기원후 3세기 중·후반대의 매장시설(통나무관, 목관)과 토기 등이 출토됐다. 이후의 5세기 중·후반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5m 내외로 높게 쌓아 무덤을 만들었는데, 이는 영산강유역권의 마한 분구묘와 유사한 분구 축조 양상이다.

이번 발굴조사의 성과는 3호분의 분구 축조방식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즉, 격자 상으로 구축한 다음 성토 경계를 토괴(土塊, 흙덩이)로 구분해 쌓아 올렸는데, 점토와 사질(질)토를 번갈아 가면서 쌓고 있어 판축기법도 어느 정도 반영했으며, 서쪽 사면의 경우 단단하게 다져진 상태다.

3호분 조사에서는 1호분과 같은 물방무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선행 분구 성토층(3세기 중후반

경)에서 추정 통나무관, 토광묘이 조사됐다. 후행의 대규모 분구 성토층에서 5세기경의 옹관 등이 확인됨에 따라 3호분은 250여년간 지속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흙덩이를 이용해 쌓아 올린 분구묘는 영산강유역권(나주 장동리고분, 북암리 3호분, 신촌리 9호분, 무안 고절리고분, 덕암고분, 영암 자라봉고분, 해남 만의총 3호분, 영암 옥아리 방대형고분)에서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걸친 마한 분구묘에서 확인되고 있다. 수직성토 및 격자망 구획에 의한 구획성토의 흔적이 뚜렷한 곳은 고창 봉덕리 고분군 3호분이다.

앞서 2009년 진행된 고창 봉덕리 1호분 조사에서 선 물방무덤(석실) 5기, 옹관 2기 등이 발견됐었다. 이 중 4호 물방무덤에서는 금동신발(보물)을 비롯한, 중국제정자, 죽엽형 은제머리장식 등 마한 모로비리국의 실체를 가늠할 수 있는 위세품 등이 출토돼 2015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대규모 토목공사 방식으로 초대형 무덤을 만드는 등 우리나라 마한문화의 최성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마한 고분의 축조방식과 변화, 성격 등을 통해 사적 확대를 추진하고, 마한역사문화권 정비계획을 통해 인근의 만동유적(도기념물), 태봉(예지리) 토성 등 마한 역사유적들을 포함한 학술조사 및 유적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민간위탁제도 연구회 본격 활동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정읍시 민간위탁제도 연구회'가 8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

정읍시 민간위탁제도 연구회는 서항경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오승현, 송기순, 한선미, 김석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회는 앞으로 정읍시 민간위탁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항경 대표위원은 "정읍시가 주관하는 민간위탁 제도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방안을 마련해 향후 정읍시민에게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 등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현수막 게시대 사용료

1만6200원→1만1800원 인하

정비반 운영 불법 게시 단속도

고창군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료를 대폭 낮췄다.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 옥외광고협회 고창군지부와 간담회를 통해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사용료를 1주 사용 기준 기존 1만6200원에서 1만1800원으로 인하했다.

고창군은 불법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와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총 101개소(6단형 52개소, 저단형 49개소)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료 인하 방안과 함께 불법현수막 근절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군은 주요 도로변과 이면도로에 상습적으로 게재되는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단속활동을 벌이는 광고물 정비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아파트 분양광고물과 고질적 광고주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광고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2023 고창 방문의해를 맞아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고창의 이미지를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정읍시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 물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만 9세~24세 여성 청소년이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님 등 주 양육자가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번 지원을 신청하면 자격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까지 매월 1만3000원(연 15만6000원)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보건·위생용품 바우

처로 지원된다.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연말까지 발급 카드사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매 가능한 품목은 일회용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시중에 판매되는 보건·위생물품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성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남원우체국

빈틈 없는 복지실현 업무협약



남원시와 남원우체국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빈틈없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손을 잡았다.

남원시에 따르면 최경식 시장과 이만수 남원우체국장 등 양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8일 '복지등기 공익우편서비스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사진〉

이 서비스는 남원시가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 구로 의심되는 가구에 복지등기(복지정보) 우편을 발송하면 우체국 집배원이 우편배달 과정에서 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주거환경 등 복지기초자료를 파악해 남원시에 회신해 준다.

시는 집배원이 파악해준 복지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해 복지 상담과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고 급할 경우 긴급지원을 통해 신속한 보호조치에 나서게 된다.

이날 남원우체국장은 "우체국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식품 정보·혁신기술 담은 공유 플랫폼 구축"

김영재 식품진흥원 이사장 취임 2년

2년간 기업 32개 유치 등 성과 푸드테크 산업 발전 주도할 것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이 공유플랫폼 구축 등 푸드테크 산업발전을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식품진흥원에 따르면 김영재<사진> 이사장 취임 2년을 맞아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 정보와 혁신기술을 담은 플랫폼으로 전환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의 취임 당시 식품산업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미래유망식품사업 선도, 스마트그린 산단화, 공유플랫폼 구축 3가지 미래사업을 선정해 추진해왔다.

특히 임기기간 대표적인 성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2년간 32개의 식품기업을 유치했다. 이는 2875억원 규모로 취임 전(2020년 말) 49% 수준으로 저조했던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율을 72%까지 끌어올렸다.

또 투자를 가로막는 글로벌 규제, 임대용지의 분양양지 전환, 식음료부지 확대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시설도 당초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했다.

여기에 구축된 첨단장비를 활용해 시제품제



'푸드비즈온' 서비스로 기업간 협력사업을 확대, 기업지원데스크, 1:1기업돌봄제 등을 도입해 기업만족도도 대폭 향상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김영재 식품진흥원 이사장은 "남은 임기 내 '정년식품창업센터'와 '기능성원료은행'을 구축해 12개 기업지원시설을 활용, 푸드테크 산업발전에 식품진흥원이 주도적으로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익산=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첨단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